Easy and Simple Truth Series

거듭남과 구원

Regeneration and Salvation

Peter Yoon 지음

The Scripture of Truth Publications
도서출판 진리의 성경

Regeneration and Salvation

By Peter Yoon

Published by Permission
ⓒ2015 by The Scripture of Truth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거듭남과 구원

지 은 이 | Peter Yoon
펴 낸 이 | 이우진
편집디자인 | 김화영
초판발행 | 2015. 9. 22
펴 낸 곳 |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5-7 향정프라자 303호
전　　화 | 010-2322-1611
이 메 일 | kjv74@hanmail.net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bbckjb
(이 책의 PDF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ISBN 97911-86022-11-5

정가 1,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But I will shew thee that
which is noted in the scripture of truth…
(Daniel 10:21a)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다니엘서 10:21a)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 Christ Jesus Publications.

거듭남과 구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요 3:3-8)

거듭남은 영에 관한 것이고 구원은 혼에 관한 것입니다. 구속은 몸에 관한 것입니다. 영은 다시 태어나야 하고 혼은 구원받아야 하고 몸은 변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영적 삶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죄인의 목표점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후 구원은 출발점이지 목표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생의 결승점, 마지막 도달점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시작입니다. 육체적 생명이란 출생 없이 육체적 삶이 존재할 수 없듯이 영적 생명의 출생(거듭남, 중생, 신생) 없이 영적 삶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보거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 내려고 애를 쓰거나 어떤 종류의 종교적 체험을 갈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

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출생의 문제이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선악 간에 행한 일들, 노력, 애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 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모태에서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태어난 날이 없는 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육체적 출생이 아닌 또 한 번의 출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한 번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출생을 반복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백번, 천 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육(肉)에서 난 것은 육(肉)일 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 아닙니다. 내세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양인들은 전생, 내세와 같은 윤회(輪回)를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윤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남(중생,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영적 생활, 복음에 합당한 행위가 중요시 되는 이 시점에서 '거듭남' 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출생의 관문' 없이 삶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출생이 필요합니다. 영적 탄생이 없으면 영적 생명을 지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고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출생' 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요 1:12).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 의 문제입니다.

*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요 3:3).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롬 14:17, 눅 17:21). 고로 육신의 행위나 노력은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요 3:5).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는 영적 출생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벧후 1:4). 우리는 모두 옛 본성(old nature), 육신에 속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natural man)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고전 2:14).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롬 8:7).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법 가운데 잉태되었습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受宅)하였나이다."**(시 51:5) 우리는 모두 부정한 물건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사 64:6a).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본래 진노의 자녀"**(엡2:3)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우리가 무슨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나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개혁, 개선, 개조. 혁신 따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수준에 도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개선, 발전, 변화가 아니라 '다시 태어남' 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거듭남' 에 대해 상당히 잘못된 교리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열렬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고, 십일조를 내고, 안식일과 각종 절기를 지켰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자주 했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엄격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네가(Thou)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이 즉 "너희가(Ye)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하게 살며, 황금률을 지키고, 교회에 다니고, 침례를 받고, 각종 종교 행사에 참여하며, 교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교는 새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삶, 양심에 충실한 삶, 깨끗하게 사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윤리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재판을 굽게 한 빌라도, 예수님을 모의해 죽인 종교지도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좋은 이웃, 유능한 일꾼, 존경받는 교사, 속세와 등진 종교 수행자들이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나 모두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은 개혁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느 날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를 깨닫고 가족과 직장을 버리고 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다 인권 운동가나 사회 운동을 하는 혁명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갖 악행과 비행을 일삼던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큰 충격을 받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 인생관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외적 태도와 삶이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외적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에 기인합니다.

거듭남은 성격 개조가 아닙니다.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변했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이 되고, 소심한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 용감해졌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면 요즘 유행하는 극기 훈련, 해병대 훈련, 수련원이나 요가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격을 개조하려고 애를 씁니다. 선생들은 학생들의 성격을 고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코치들은 선수들의 성격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격을 완전히 개조 시켜 놓는데 성공했다면 그 사람이 거듭난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한 것이지 다시 태어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태어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요 3:6) 거듭나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몸은 모태에서 나는 것으로 끝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정신(혼)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정신적 깨달음, 달관의 경지,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거듭남인 줄로 압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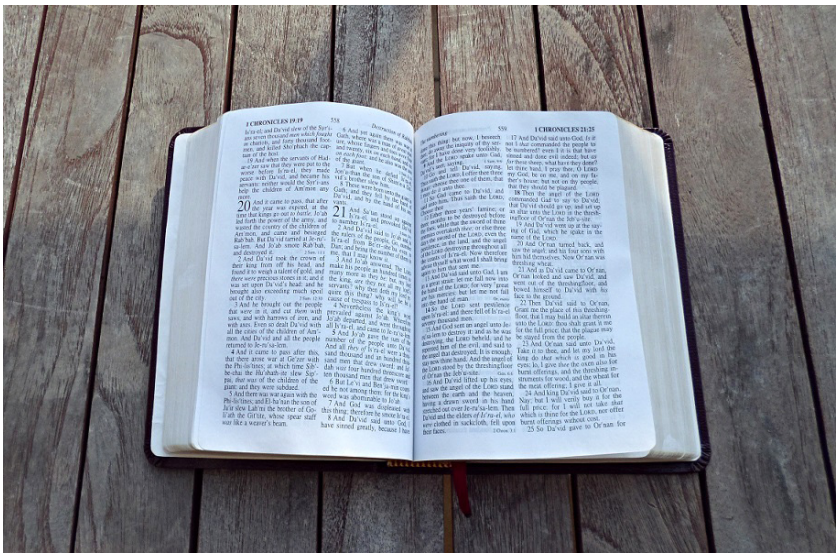
게서 난 영(spirit)이 우리 속에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 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요 4:24). 고로 우리는 영이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요 1:13).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요 8:47)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요, 출생의 문제입니다. 결코 행위나 일, 노력, 애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거듭남은 말씀의 씨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약 1:18)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벧전 1:23)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생명을 낳는 씨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됩니다.



거듭남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요 3: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요 3:36a).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

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성품(divine nature)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new man), 속 사람(inner man)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거듭난 성도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합니다. 본성상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피하고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주님께 경배 드리고자 하는 욕구가 넘칩니다. 병아리와 오리 새끼는 물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엡 2:10a) 거듭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완전한 사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는 주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놀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요 3:9)라며 의심에 찬 불신과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인들, 철학자들, 교육학자들, 신학자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거듭남을 단지 신 사고, 혁신, 변혁, 개혁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 '오늘날 교회는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고 외칩니다. 정치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이 나라의 거듭나게 하겠다.' 고 공언합니다. 경기에 패배한 선수들은 정신을 무장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거듭났다.' 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 내의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바람의 능력, 바람이 하는 일 등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요 3:8) 바리새인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유대인들의 치리자였던 니고데모가 그러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람을 볼 수 없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풍을 보십시오. 거대한 바다의 물을 움직이는 그 힘은 바람입니다. 토네이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무가 뽑히고, 집들이나 차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우리는 바람을 보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지만 바람이 일하는 결과, 바람의 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일하심 역시 그러합니다. 성령을 통해 창기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술주정뱅이가 건전한 사람이 되고, 신성 모독자였던 이가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 그 사람 안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출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마음이 밭이 되어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 이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성품을 부여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 사람,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 생명이 육체적 출생을 통해 시작되듯이 영적 생명은 영적 출생을 통해 시작됩니다. 교회 출석을 시작했다든가 기타 어떤 종교적 활동을 함으로써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태어남' 의 문제이지 교육이나 종교적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 으로 됩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 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부모의 피를 물려받고, 부모의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자가 됩니다(벧후 1:4).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요 3:7)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육체적 출생이 있었다는 사실만큼 영적 출생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거듭남' 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복음에 합당한 의롭고 거룩한 행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듭남이 있었는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거듭남은 혈통으로 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거듭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든지, 어머니가 독실한 믿음의 소유자라 해서 내가 자동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혈통' 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인들 중에는 '모태 신앙' 을 무슨 타이틀인 것처럼 믿음의 표지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중에서부터 교회에 다

녔다는 사실이 자랑거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복중에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식으로 이해하거나 믿는다면 그는 여전히 거듭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듭남은 혈통(blood)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육체적 노력이나 행위로 우리는 영적 탄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고행이나 금욕, 선행이나 수련, 자선이나 기타 등등의 종교적 행위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적 출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딛 3:5)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 2:8-9)

노력을 통해, 행위를 통해 거듭남에 이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단순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중생(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거듭나게 하겠다고 계획하고 작정한다고 해서 어떤 이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 단체들이 그런 일을 능히 할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지만 거듭남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모임에 참여하고, 서약하고, 그들의 교리나 행동 강령을 준수하면 됩니다. 열심히 활동하면 충성도 높은 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시스템을 통해 거듭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성경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거듭남' 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인반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조차 거듭나지 않은 채 목사 고시를 통과하고, 안수를 받아 목회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은 '영' 입니다(요 3:6).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을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고 하

늘에 오르셨습니다(히 1:3).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갈 3:26)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 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은 복음은 '구원의 복음' 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사람을 구조대원이라고 합니다. 망망대해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해상 구조대를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하

다 길을 잃어버리거나 다쳤을 때 즉시 '구조'를 요청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길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구조'를 요청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구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돌아 와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마 20:28)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딤전 2:6)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한 일을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복음이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오셨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의(義)나 행위나 노력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까지 사람들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이 걸린 환자일지라도 병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약을 찾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죄의 형벌과 심

판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결코 죄의 용서, 구속, 의롭게 되는 것 등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칭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거부합니다. 구원자를 배척합니다.

둘째,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금욕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선행이나 자선을 통해서, 법을 지킴으로써, 철학적 사색을 통해서, 종교를 가짐으로써, 혼적 달관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이 아닌 나름대로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셋째,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나 철학,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 은혜로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딤전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고전 15:3-4).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롬 10:9-10).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는 것' 입니다.

＊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2) "주셨으니"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잇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먼 미래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구원은 죽어 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아는 것입니다.

＊ 그를 믿는 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3:15)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누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까? 노력하는 자, 애쓰는 자, 성실한 자, 인격이 고매한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십니다. 때로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고 하지만 구원에는 '믿어야 한다.' 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제한' 이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이라고 말함으로써 남녀노소, 인종, 민족, 국가, 성별, 빈부귀천, 지위고하, 종교를 불문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제한도 두지 않으십니다.

＊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요 3:36a).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사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심을 믿는 자는 이미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everlasting life)은 사후에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얻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예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얻어 살아야 하는 생명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있느니라."(요 6:47). 이 생명은 다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4)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믿는 자는 지옥의 정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害)를 입지 않습니다(계 2:11, 20:6).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믿는 자' 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 생명,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단지 '믿는 자' 입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유일한 조건은 '믿으면' 입니다. 다른 조건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초대 교회의 유대인들은 "믿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고 침례를 받으면" 이라고 침례를 추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고 안식일을 지키면" 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고 선행을 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고 교회를 다니면" 이라고 가르칩니다. 단순한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이들은 복음을 혼잡 시키는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오직 믿음" 만이 전부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믿음에다 어떤 행위를 더하려는 자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나 선행이나 자선이나 청빈이나 교회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등의 가르침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롬 10:9)
*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행 10:43)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행 16:31)

구원을 얻는 방법이 주 예수를 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 보면 대답이 매우 불분명합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지 이야기하거나 자기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였다는 등의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런 대답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받은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받으려고 합니다. 받고 싶습니다. 노력 중입니다. 죽어 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알아요. 이런 대답을 하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오래 다녔든지 집사나 장로의 직분을 맡고 있든지, 성경 교사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분명히 압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의 지식과 확신이 함께 임합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언이 터지든가 몸에 이상한 열기가 솟아오르는 등이 동반되는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을 통해 영적 진리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을 내리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의 선택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것은 애매하거나 헷갈리거나 모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안에 뜨거운 느낌이 있든 없든, 체험이 있든 없든, 깨달음이 있든 없든, 교회 출석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면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임의로 구원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의지적 결정입니다. FAITH IS NOT FEELING

BUT WILLING.

때로 복음 전도자는 강단에서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손을 들라"고 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 중에는 머뭇거리다 손을 드는 사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음 기회에 하자고 미루어 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은 일어났지만 그의 의지는 '영접' 대신 '연기' 또는 '거부'를 결정함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음에 믿겠다. 다음에 영접 기도를 따라 하겠다."고 하다가 몇 년, 몇 십 년의 세월을 날려 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은퇴 후에 믿겠다, 나중에 믿겠다고 말하다가 영원히 믿지 못한 채 지옥에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을 두시고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믿음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믿도록 강권하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유난히 '구원'에 대해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교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저절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지역 교회에 나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침례(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하나님은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이란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벧전 3:21)

＊ 계속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회개를 통해 죄를 깨끗이 씻은 다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모든 죄는 다 씻음 받습니다. 죄의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요일 1:9). 마귀의 속임수 중 하나는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하다거나 부분적이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자범죄는 내가 매 순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행위에 근거해 받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엡 2:8).

＊ 방언은 구원받은 증거다.

이는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표적입니다. 육체적인 체험과 느낌을 강조하는 이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방언, 입신, 환상, 꿈, 계

시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고, 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구원은 감정에 상관없이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오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 택함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다.

구원은 미리 예정된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칼빈주의의 예정 교리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 이 필요하지만 믿는 데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데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깨달은 날짜와 시간, 깨달은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물어 봅니다. 이들은 개역 성경의 한 구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know, 개역은 '깨달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음) **그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기독교는 불교와 같이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적 지각(understanding)을 부어 주십니다.

＊ 구원은 죽은 뒤에야 알 수 있다.

요한일서 5:13을 읽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과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영접 기도를 따라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을 주문 외우듯이 공식화하고 암기식으로 영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하는 영접기도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 현재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 뿐이다. 고로,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은 비슷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때 죄는 용서되며, 제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전까지는 누구의 죄도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으면 나의 가족도 구원받는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이 간수에게 말한 이 구절은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구절은 마치 내가 믿기만 하면 나의 집도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라고 말했을 때, "너만 믿으면 너의 집도 구원 받는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집도 구원받고, 누구라도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32절에 보면 바울은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으며, 34절에서 온 가족이 다

믿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는 고넬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고넬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네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천사는 고넬료 혼자만 믿으면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게 될 복음의 말씀을 통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구원은 무엇입니까?

* 첫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은 거듭나며, 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벧전 1:23, 약 1:18).
* 둘째, 믿음의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

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whereby we must be saved)."(행 4:12)

* 셋째, 죄로부터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지옥의 심판과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가난, 위험, 재앙, 질병, 육신의 위협 등으로부터의 구원과는 전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골 1:14, 고전 15:3-4).
*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히 완전한 단번 속죄입니다. 이는 다시 반복될 수 없으며, 사람에 의해서 계속될 수 없습니다(요 19:30, 히 9-10장). 유다는 이 믿음을 가리켜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유3)고 권면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이며, 최우선적인 사역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어떤 사역도 잃어버린 혼들의 구원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을 이겨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by all means, 모든 수단을 다

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전 9:19-22)

하나님께서는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구령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조명과 계시는 신학교 교실에서 교수에게 배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단에서 나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지금 이 시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순간 바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복 주십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믿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라면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명하십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믿었다면 안심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이 '구원'을 보증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이 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글을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관련 성경 구절을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시고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11에 묘사된 사람들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사 6:3, 57:1, 벧전 1:15, 계 4:8).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된 것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계십니다(사 59:2, 시 24:3-4, 사 6:3-5). 성경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온전히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14:6, 딤전 2:3-6).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시 14:1-3, 롬 3:10-18, 23, 사 53:6, 시 51:5, 왕상 8:46). 당신의 마음도 악하고 사악합니다(렘 17:9-10, 막 7:20-23, 마 7:11). 그러므로 당신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롬 3:19). 그래서 현재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상태이며 그분의 진노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살후 1:8-9, 마 25:41, 46, 막 9:42-48, 계 20:11-15, 21:8).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함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요 3:17, 마 1:21-23, 눅 19:10, 딤전 1:15). 영원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1:1, 사 7:14, 9:6, 미 5:2, 딛 2:13)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는데(요 1:3, 골 1:13-16)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당신을 대신해서, 저와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저와 당신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사 53장, 롬 5:6-8, 고전 15:3, 고후 5:21, 갈 1:4, 벧전 2:24, 3:18, 요일 2:2, 3:16, 4:10).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저를 대신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일에 만족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고전 15:4-20, 롬 4:25). 또한 이 부활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장하신 것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롬 1:4).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알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책임입니다(행 16:30-31, 요 3:16, 18, 36).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서(요 6:35-37)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요 1:12, 롬 6:23).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1. 주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행 4:12, 요 10:9, 14:6).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2.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살전 4:14, 고전 15:3-4, 롬 10:9).
3.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히 7:25, 사 59:1, 마 19:24-26).
4.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요 6:37, 딤전 2:4).
5.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요 3:16).

당신은 다음의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 당신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사 64:6, 엡 2:9, 딛 3:5).
2.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롬 3:20, 갈 2:16, 약 2:10).
3.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엡 2:8-9, 행 16:31).

당신은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엡 2:4-9, 딛 3:4-7).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그분으로 인해,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는 것 외에 무엇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딛 1:2, 히 6:18),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히 13:8),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 기쁨 가운데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28, 요한복음 1:12, 3:16, 3:18, 3:36, 5:24, 6:35, 6:37, 6:47, 10:9, 11:25, 사도행전 10:43, 로마서 10:9, 10:13, 요한일서 5:11-12

구원받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벧후 3:18).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해야 합니다.

1.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마 28:19-20, 행 10:48, 2:38),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고후 5:14-17, 롬 6:3-11, 갈 2:20).
2.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합니다(벧전 2:2, 마 4:4, 시 119:97).
3.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히 4:16, 살전 5:17, 눅 18:1).
4.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신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행 2:42, 히 10:25).
5. 매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생각으로 짓는 죄나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분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요일 1:8-2:2, 요일 1:9, 시 51:3-6, 시 32:3-6, 잠 28:13).
6.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시 107:2, 마 10:32, 롬 10:9-10).
7. 행실과 입술과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행 1:8, 사 43:10-12). 당신이 사는 방식과 인생과 말을 통해 사람들을 그

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빌 2:15-16, 골 3:17, 벧전 3:15, 골 4:5-6).